

TV 껐나요? 그럼, 디자인비엔날레 가볼까요?

‘기러기아빠’ 생활 들여다보고
죽음에 관한 이색 디자인까지
44개나라 130여작품 선보여

들뜨기 쉬운 추석, 집안에서 TV만 보지 말고 문화 나들이를 떠나보자. 광주에서는 2년마다 열리는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현대 디자인의 화려한 향연을 펼치고 있다.

44개국 130여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수준 높은 작품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이 대거 출품됐다.

▲죽음에 담긴 이색 디자인=“당신은 어떤 관을 만들 것입니까?” 가나에서 3대째 관을 제작하고 있는 에릭 아드제데이 아남은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 질문을 올렸다. 대답과 관 주문은 다양했다. 오렌지 농장주는 오렌지 모양으로, 어부는 물고기 모양의 관을 요구했다. 자신의 할머니는 비행기 관에 물렸다고 한다.

그는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직접 이색 관을 제작했다. 한국 사람이 소주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소주 모양의 관을 만들어 전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죽음을 소재로 한 이색 디자인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새롭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는 죽음을 소재로 한 이색 디자인 작품이 많다. ‘사후 디자인’도 죽음 연작 중 하나다. 민간 우주선을 쏘아올려 화장한 재를 달에 매장하는 방법, 친환경적인 매장법 등 다양한 장례 디자인을 보여준다.

‘처형 디자인’은 좀 더 섬뜩한 죽음의 모습을 선보인다. 인간이 개발한 6가지 처형법을 소개하고, 필요한 도구들을 함께 전시한다.

동물의 죽음과 관련된 디자인도 있다. ‘템플 그랜든’은 어린 시절 자폐아 진단을 받은 템플 그랜든이 고안한 도살장 디자인이다. 그녀는 순간적인



온 가족이 모인 추석 연휴에 문화를 즐기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보자. 사진은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장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미지를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 소의 움직임을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이런 소의 행동에 맞는 사육장을 디자인했다.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로를 설치해 소의 시선을 가리는 등 인간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이 작품에 녹아 있다.

▲직접 만져보고 느껴세요=관람객이 만져보며 느낄 수 있는 작품도 많다. 영국의 에버러트 아키텍처는 합판과 그래픽, 이미지, 각종 소품들을 이용해 전시장 안에 한국의 아파트를 재현해 놓았

다. 관람객들은 아파트 속 작은 통로로 기어 들어가 하루 8시간 영어공부를 해야 하는 초등학교가 되어보고, 이주 노동자의 삶과 기러기 아빠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서로가 되어본다.

아일랜드 출신의 디자이너 스티븐 라벨은 영국 경찰이 군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개발한 ‘케틀링’이라고 하는 군중 통제 기술에 대해 논평하고 반박하기 위해 ‘군중 통제 온라인 게임’을 고안했다. ‘케틀링’은 경찰이 시위대 주위를 빙 둘러 시위자들을 봉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전술인데, 이를 그대로 게임으로 옮겨놓았다.

‘작업아카데미’는 관람객이 모래를 삽으로 퍼 나르거나 흙을 이용해 거대한 항아리 만들기 등 동참하고 화초에 물을 줘 식물도 기를 수 있는 작품. 노동 분야에서 일어난 실험들을 선별해 보여주며, 작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인간의 마음과 신체를 정비하는 과학적이고 놀라운 기술들을 알려준다. 문의 062-608-42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9~10일 ‘해설있는 한가위 국악한마당’
도립국악단 토요일공연 ‘더도 덜도 말고...’
유쾌한 코미디 연극 ‘고스트’도 볼만해요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채로운 공연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전남도립국악단이 진행하는 토요일공연이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린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판소리 해금과 가야금의 듀엣으로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까지’, ‘정남’을 들려주며 민요, ‘사찰가’, 강강술래, 마당놀이 창극 ‘돌아온 각설이’ 등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의 마지막에는 흥겨운 타악기 등이 어우러진 ‘신명의 타고’가 여객을 들뜨게 한다.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광주시립국악단 공연도 명절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무대다. 9~10일 이틀간 오후 7시 30분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 야외공연장.



광주시립국악단의 남도민요 공연 모습

‘해설이 있는 한가위 국악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윤진철 감독은 우리의 전통음악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갈놀이와 판굿을 시작으로 대금독주, 가야금병창, 기악합주, 남도민요, 부채춤, 판소리, 강강술래 등을 선사한다.

유쾌한 코미디가 보고 싶다면 ‘고스트’ 공연장을 찾는 것도 좋다. 25일까지 광주 삼부지구 우체국보훈회관 16층 기본층은 극장.

‘고스트’는 3년전 죽은 아내가 유령이 돼 돌아오는 바람에 두 명의 아내와 한 집에서 동거하게 된 소설가의 이야기가 유쾌하게 그려지는 작품이다.

깊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늬운 코메디언의 이야기’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9~10일 오후 7시 공동예술극장.

과거 악극단에서 코미디를 하던 허동팔과 천명태는 화려한 도시 고가 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공연을 하다 넘어지는 바람에 밤무대에서 해고를 당한 두 사람은 도시계획 때문에 집까지 철거될 위기에 빠지자 더욱 허탈해진다. 그때 휘트니라는 여자 가수가 찾아오고, 천명태는 휘트니에게서 딸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현기·정일공·정순기·이현씨가 출연하며 박규상씨가 연출을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출품작 많아 뭘 볼까 고민된다면?

출품작이 많고,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면 승효상 공동감독이 추천하는 작품을 우선 둘러보면 된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작품이 없을 텐데 개막전 승효상 감독이 추천한 작품은 이번 전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승 감독은 공동감독을 맡았던 아이웨이 웨이의 ‘필드’를 첫 손에 꼽았다. ‘필드’는 중국 전통 도자기로 만든 대형 설치 작품이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 전시됐다.

얼핏 보면 관을 연결시켜 놓은 듯 획일적이지만 도시와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또 ‘바이크행어’도 놓치면 후회할 작품으로 승 감독은 추천하고 있다. 안지용, 이상화 등 한국 작가의 친환경 디자인 작품이며, 사람의 힘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탄소강으로 인공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기어가 달린 고정식 자전거를 아래에 설치해서 오직 사용자의 페달 작동만으로 모든 설비가 돌아가도록 했다.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콤데 가르송의 여정’은 프린트된 자료와 사진으로 콤데 가르송의 발전과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창작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묘사하고 있다.

‘승 감독의 10작품’에 포함된 ‘슬레이브 시티’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매년 70억 유로의 순이익을 올리는 디스포피아 프로젝트를 소개한

승효상 공동감독이 추천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베스트10’

다. 기존의 가치와 시장 논리를 뒤집고 새로 디자인한 슬레이브 시티는 인구 20만 명이 사는 마을이다. 슬레이브 시티는 최초의 ‘제로 에너지’ 마을이다. 모든 것이 재활용되는 녹색 마을로 세상의 자원을 일체 낭비하지 않는다. 또 ‘새들은 가로질러 난다’는 비디오에서 새어 나오는 두 개의 두터운 빗줄기가 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글자를 만들어낸 작품이다.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다른 하나는 시계반대방향으로 돌고 지나간다.

이 밖에 토론의 장인 ‘현장 허브’와 쇠대박물관의 들쇠와 가래 등을 선보이는 ‘대장간’, 어린 이들을 위한 전시 ‘아이의 노래’, ‘물입 기상 환경’, ‘음식 커뮤니터’ 등도 승 감독의 추천을 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장간’



‘바이크행어’

우리의 마음만큼 풍성한 보름달을 바라보며 온가족 함께 모여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더욱 밝은 모습으로 뱃기를 기대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미래로21병원
MIRAERO 21 MEDICAL CENTER

원장단 일동
대표전화 : (062) 450-1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079번지

100%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엔틱식탁·거실장·침대·클래식 소파 등

홍스페이스 대표이사 이재홍

대표전화. 062-226-7567
광주광역시 동구 정동 58-15 동구청·전남여고 사이 홍스페이스 기구빌딩